『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二音節) 한자어의 특징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어사 전공
leehj@aks.ac.kr

Ⅰ. 머리말
Ⅱ.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한자어의 출현 양상
Ⅲ.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한자어의 성격
Ⅳ. 맺음말

I. 머리말

한문(漢文)을 국어로 언해(번역)하는 일은 한문(漢文) 문헌(文獻) 안에 포함된 한자(漢子)들을 국어화(國語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문과 번역문(飜譯文)에 같은 한자가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한자가 발휘하는 문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교(敎)'의 경우 한문에서는 자립형태소로서 명사어간이나 동사어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어에서는 비자립 형태소로서 단독으로는 아무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언해과정에서 한문의 한자가 국어의 한자어 형태소로 변화할 때 겪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으로 삼은 문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어제류(御製類) 언해서(諺解書)이다.

장서각 소장의 어제류는 대부분 영조가 저술한 것으로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일부는 한문본을 언해하여 한글로 필사한 경우가 있다.[1] 이러한 영조 어제 언해서들은 대부분 임금이 직접 보기 위한 어람용으로 필사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 이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어제 언해서들은 여타의 국어사 자료로 활용되는 언해서들과는 제작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여타의 언해서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언해자가 언해에 참여한 반면에, 장서각 소장의 어제 언해서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궁중에서 사관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렇게 제작된 어제 언해서들은 언해에서도 일관된 언해방식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영조 어제 언해서들은 여타의 언해서들과 비교했을 때, 철저히 원문을 직역하는 특징이 있다.[3] 이러한 직역방식을 고수함으

---

1) 장서각에 소장된 영조 어제 언해서는 필사본 6종과 간행본 5종이 있다. 필사본 언해서 6종은 장서각 유일본으로 『어제자성편(언해)』(1746), 『어제속자성편(언해)』(1759), 『어제경세문답(언해)』(1762),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1763), 『어제조훈(언해)』(1764), 『어제(언해)』(1763, 1764, 1765)가 해당된다. 영조 어제 언해서 중 간행본으로는 『어제상훈언해』(1745), 『어제훈서언해』(1756), 『어제계주윤음』(1757), 『어제경민음』(1762), 『어제백행원』(1765)이 있다.

2) 임금이 보는 어람용은 일반 전적과 달리, 최상품의 종이를 사용하여 사주, 계선, 어미 등 판식을 붉은 먹으로 직접 그리며, 비단으로 표지를 만들고, 흰 비단에 책 제목을 쓴 뒤 붉은 먹으로 테두리를 그린 제첨을 붙이는 독특한 형태 서지적 특징이 존재하는데, 영조 어제 필사본 언해서가 이러한 형태 서지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용만, 「英祖 御製冊의 자료적 성격」, 『장서각』 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참조.

3) 중세국어에서부터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언해문들은 한문 원문을 충실히

로써 한문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국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어제 언해서의 직역과정에서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구명하려 한다. 즉, 한문과 국어에서 문법적 성격이 다른 한자를 언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어화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영조 어제류 전체를 대상 자료로 삼아야 하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의 시론으로서 『어제속자성편(언해)[御製續自省篇(諺解)]』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문헌은 장서각 소장의 『어제속자성편(언해)』이다. 이 책은 저본이 되는 한문본 『어제속자성편』을 언해한 책이다. 언해본의 필사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문본이 편찬된 1759년(영조 22) 직후에 언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어제속자성편(언해)』은 장서각 유일본으로 어제 언해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4)]

어제 언해서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비자립성"이다. 결국 언해자들은 한문 원문에서는 자립적 성격을 가졌던 한자가 국어화 과정에서 비자립적 형태소가 되는 현상을 직면하고, 이 비자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을 고안하게 된다. 우리는 이 방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문 원문과 언해문의 비교를 통하여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한자어의 출현 양상

『어제속자성편(언해)』는 순한글로만 필사된 언해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자어를 찾아내고 대응되는 한자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직역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보편적인 직역의 흐름 속에서도 어제 언해서의 하나인 『어제속자성편(언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직역의 성격은 본문에서 기술할 것이다.

4) 『어제속자성편(언해)』에 대한 체재 및 국어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황문환 외, 『역주 어제속자성편(언해)』,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본 자료총서 2(역락, 2006) 참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다행히 황문환 외(2006)에서 수행한 역주서가 발간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역주서는 국어학과 한문학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해당 어휘에 한자를 병기하고 뜻풀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의 결과물에서 이음절 한자어를 추출하였고 이를 한문 원본과 대조 작업을 진행하였다.

『어제속자성편(언해)』에는 총 886개의 이음절 한자어가 나타난다. 이 중 고유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148개이다. 여기에는 특정 연도를 표시하는 연간지를 비롯하여 다음의 한자어들이 포함된다.

● **이음절 고유명사 한자어**

[연간지(年干支)]: 갑진〈8a〉, 경슐〈8b〉, 경신〈30b〉, 경ᄌᆞ〈6a〉, 뎡유〈19a〉, 뎡튝〈16b〉, 무슐〈7a〉, 신튝〈7a〉, 임인〈8a〉, 임진〈6b〉, 졍유〈18b〉

[인명(人名)]: 걸듀〈31b〉, 고조〈22a〉, 고종〈22b〉, 공밍〈31a〉, 공ᄌᆞ〈5b〉, 곽위〈33b〉, 광무〈35b〉, 구쳔〈22b〉, 녁싱〈35b〉, 뉴시〈22b〉, 뉴쟝〈23b〉, 뉴합〈34a〉, 뉴항〈22a〉, 뉵가〈35b〉, 니환〈41a〉, 단쥬〈38a〉, 당쇼〈32b〉, 당종〈25b〉, 대슌〈29a〉, 뎡셩〈8b〉, 뎡쥬〈31a〉, 뎡희〈31b〉, 도간〈26a〉, 도곡〈25a〉, 도즘〈33a〉, 동ᄌᆡ〈4a〉, 됴변〈32b〉, 등문〈29b〉, 령뎨〈26b〉, 마원〈35b〉, 명종〈32a〉, 모쵸〈23b〉, 무공〈28a〉, 문공〈28b〉, 문뎨〈27b〉, 문무〈35b〉, 문왕〈16a〉, 밍광〈34b〉, 밍ᄌᆞ〈15b〉, 부ᄌᆞ〈14b〉, 부찰〈34a〉, 셔셰〈31a〉, 션뎨〈26b〉, 셩왕〈21a〉, 셩탕〈18a〉, 쇼렬〈30b〉, 쇼종〈32b〉, ᄉᆞ씨〈37b〉, 양왕〈15b〉, 양젼〈34a〉, 엄광〈24b〉, 왕보〈34a〉, 요순〈12a〉, 월녀〈31b〉, 위왕〈23a〉, 유약〈28a〉, 유우〈29a〉, 은듀〈16a〉, 임쥰〈41b〉, 장왕〈31b〉, 졔갈〈31a〉, 졔위〈23b〉, 조조〈31a〉, 쥬공〈20b〉, 쥬불〈22b〉, 증ᄌᆞ〈2a〉, 채경〈34a〉, 초장〈31b〉, 추셩〈29a〉, 탁무〈24b〉, 태종〈27b〉, 텬보〈31b〉, 포은〈31a〉, 하우〈16a〉, 한고〈22a〉, 한문〈28a〉, 한싱〈23b〉, 항우〈22a〉, 현종〈31b〉, 혜뎨〈26a〉, 황수〈8a〉, 황시〈33a〉, 후직〈27a〉, 휘종〈34a〉, 흠종〈34a〉

[국명 또는 국명이 포함된 고유명사]: 고려〈37a〉, 남됴〈33b〉, 당시〈22a〉, 당ᄉᆞ〈32b〉, 당쥬〈32a〉, 명ᄉᆞ〈30a〉, 송뎡〈34a〉, 오계〈33b〉, 쥬가〈27b〉, 쥬실〈29a〉, 촉한〈23a〉, 한당〈24a〉, 한ᄉᆞ〈26b〉, 후당

〈32a〉, 후쥬〈25a〉

[지명]: 공임〈6a〉, 뇨동〈17a〉, 님안〈22b〉, 딘교〈25a〉, 심도〈5b〉, 즉묵〈23a〉, 탁룡〈18b〉, 태산〈30b〉, 회계〈22b〉

[서명(편명)]: 구경〈17b〉, ᄉᆞ긔[5]〈30a〉, 대ᄒᆞᆨ〈11a〉, 듕용〈17a〉, 보감〈18b〉, 샹톄〈5a〉, 셔뎐〈11b〉, 쇼ᄒᆞᆨ〈11a〉, 심감〈2b〉, 심경〈29b〉, 요뎐〈11b〉, 용ᄒᆞᆨ〈29b〉, 졍요〈25b〉, 주례〈23b〉, 츈츄〈14b〉

[건물명]: 댱낙〈5a〉, 번뎌〈26b〉, 슝문〈39a〉

[관청명]: 듀원〈15b〉, 듕서〈34b〉, 샹방〈35a〉, 예조〈22b〉, 운관〈12a〉, 총부〈6b〉, 탁디〈17a〉, 뎐조〈23a〉

[관직명]: 문ᄒᆞᆨ〈41b〉, 샹신〈16b〉, 슈찬〈41b〉, 승션〈39a〉

고유명사는 언해문에 나타나는 일반 한자어와 구별해주어야 한다. 보통 이들은 모두 한문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들여온 것이다. 실제로 언해문의 고유명사는 한문 원문의 한자가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위의 고유명사를 제하고 나면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음절 한자어는 738개가 남는다. 738개의 이음절 한자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한문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언해문으로 가져온 경우이다. 이러한 한자어가 총 574개이다. 이는 전체의 77.8%를 차지하는데 이음절 한자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한문 원문에 나오는 일음절 한자를 언해문에서 이음절로 보충한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한자어는 총 164개이다. 이음절 한자어의 22.2%를 차지한다.[7]

---

5) 일반명사로서의 역사의 기록을 뜻하는 말이 한문 원문에서는 '史'로 나타나고 고유명사로서의 서명인 사마천의 『사기』는 '史記'로 나타난다. 그런데 언해문에서는 전자의 '史'를 'ᄉᆞ긔'〈33b〉로 언해하고, 후자인 '史記'를 그대로 'ᄉᆞ긔'〈30a〉로 가져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6) 예외적으로 고유명사 중에는 다음과 같이 한문 원문에서 일음절로 나타나는 인명을 국명이나 직함을 덧붙여 이음절로 언해한 경우가 보인다.
【劉】 뉴시(劉氏)〈22b〉, 【勃】 쥬볼(周勃)〈22b〉, 【惠】 혜뎨(惠帝)〈26a〉, 【文】 문뎨(文帝)〈27b, 37b〉, 【徽】 휘종(徽宗)〈34a〉, 【欽】 흠종(欽宗)〈34a〉

7) 언해문의 한자어 중에 원문일치 한자어이면서 동시에 원문보충 한자어인 경우는 다음의 네 단어이다. '경비'는 원문에서 '經費'〈17a〉〈18b〉 또는 '費'〈28a〉로 나타난다. '님어'도 원문에서 '臨御'〈15b〉〈28a〉〈23a〉〈4b〉 또는 '御'〈30b〉로 나타난다. '됴뎡'은 원

세 번째 유형은 한문 원문에 등장하는 한자를 포함하지 않는 전혀 다른 한자어가 언해문에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 번째 유형의 한자어는 『어제속자성편(언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이 어제 언해서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문 원문의 '誠', '寔', '良', '固'를 '진실노'〈2b, 11b, 19b, 34a〉로 언해한 경우, 원문의 '民'을 '빅셩'〈4a〉으로 언해한 경우(한문 원문에 '百姓'은 '빅셩'〈28a〉으로 나온다), 원문의 '辭'를 '하딕(下直)'〈5a〉으로 언해한 경우, 원문의 '摯'를 '지극'〈11b〉으로 언해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歉歲'를 '흉년'〈18b〉으로, '制'를 '녜뎨'(例祭)[8]로, '登第'를 '과거'〈25a〉로, '與'를 '참예'(參預)〈28a〉로, '頃年'을 '석년'〈28b〉으로, '崇奬'을 '슝샹'〈30b〉으로 언해한 경우가 있다. 모두 10개의 어휘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어제 언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언해서와 비교했을 때 철저히 원문을 직역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으로 인식되어왔다.[9]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데에는 바로 언해문에 나타나는 한자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제 언해서에는 한문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 원문에 나타나는 한자가 포함된 한자어를 단어의 한 성분으로 이용해 언해문을 기술하려는 의식이 다른 문헌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다.[10]

논의의 편의상 『어제속자성편(언해)』에 등장하는 이음절 한자어를 한문 원문 한자와의 일치성 여부를 고려하여, "원문일치한자어", "원문보충한자어", "원문불일치한자어"로 부르려고 한다. "원문일치한자어"는 첫 번째 유형의 한자어로서 한문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언해문으로 가져온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인 "원문보충한자어"는 한문 원문에 나오는 일음절 한자를 언해문에서 이음절로 보충한 경우이고, 세 번째 유형인 "원문불일치한자어"는 한문 원문에 등장하는 한자를 포함하지 않는 전혀

문에서 '朝庭'〈4a〉〈34a〉 또는 '朝'〈15a〉로 나타난다. '슌연'은 원문에서 '純然'〈1a〉〈35b〉 또는 '純'〈36a〉으로 나타난다.

8) 기일을 정하여놓고 상례대로 지내는 제사.(『표준국어대사전』)

9) 『어제속자성편(언해)』에는 한문 원문에 대한 축자적 번역이 두드러진다. 한문 원문의 '이래'를 축자역하여 '뼈 오-'〈35b〉로 번역한 예도 보이고, 원문의 '以後'에 대해서 '뼈 후'〈30b〉로 번역한 경우도 보인다. 의역을 위주로 하는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이다.

10) 조남호(2001)에 의하면 『두시언해』(1481)에 나타나는 한자어 중에 원문 일치 한자어는 전체 한자어 중에 63.9%를 차지한다. 조남호, 『두시언해 한자어 연구』(태학사, 2001), 72-98쪽.

다른 한자어가 언해문에 등장하는 경우이다.

Ⅲ.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한자어의 성격

1.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한자어의 국어화

언해과정에서 출현한 “원문일치한자어”, “원문보충한자어”, “원문불일치한자어” 등의 이음절 한자어는 실제 국어 어휘 체계에 포함된 어휘였을까. 아니면 언해과정에서 임시로 등장한 어휘였을까.

사실 이들이 한문 원문의 영향에 의해 임시로 나타난 한자어인지 국어 어휘 체계 속에 자리 잡은 한자어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국어 한자어의 분석 능력 및 조어 능력은 한자를 습득한 화자의 한자나 한문에 대한 지식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국어 화자에게는 당연히 국어 한자어로 인식되는 단어가 또 어떤 화자에게는 전혀 국어 단어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속자성편(언해)』의 언해자는 궁중에서 어람용 어제 언해서를 필사하는 사관이었을 것이므로 한자나 한문 지식이 당대의 어떤 국어 화자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언해자는 대다수 한자어(漢字語)의 한자 한 자 한 자를 모두 형태소로 인식하고 단어 형성이나 단어 분석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1]

“원문일치한자어”, “원문보충한자어”, “원문불일치한자어” 중에 국어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어휘는 “원문일치한자어”일 것이다. 『어제속자성편(언해)』는 여타의 어제 언해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직역 위주의 문헌이다. 이러한 직역 위주의 언해문은 어휘 선택에서도 한문 원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가 원문의 영향으로 언해문에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한문 문장에 익숙한 언해자는 부지불식간에 한문의 한자를 국어에서 통용하는 한자어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대응하는 적당한 국어

11) 한자어 형태론에 화자 및 한문 지식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안소진, 「한자어 형태론의 제 문제와 어휘부」(『한국어학』 62권 0호, 2014) 참조.

어휘를 찾지 못해서 한문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언해문으로 가져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문일치한자어" 중에는 한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한자어와 국어에 정착한 한자어가 혼재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사실 "원문일치한자어"를 검토해보면 이들 한자어 중에는 그 당시 국어에서 통용되던 한자어로 보기 힘든 어휘들이 보인다.[12] 예를 들면 "ᄌᆡ ᄀᆞᆯ오샤ᄃᆡ 회ᄉᆞ 후쇠라"〈12a〉의 '회ᄉᆞ(繪事)', '후소(後素)'는 사실상 국어로서 한자어의 자격을 부여하기 힘든 것들이다. '격텬'〈12b〉, '과궁'〈15a〉, '극공'〈29b〉, '누슈'〈2a〉, '방촌'〈13b〉, '원원'〈36b〉 등의 한자어는 언해과정에서 적당한 국어 어휘를 찾지 못해 원문의 영향으로 임시로 등장한 한자어이지 국어 어휘 체계 속에 정착한 한자어로 보기 힘들다.[13]

특히 "원문일치한자어" 중에 '유위(猷爲)【유(猷)ᄂᆞᆫ 쐬오 위(爲)ᄂᆞᆫ ᄒᆞ단 말이라】'〈1b〉에서처럼 각주로 그 뜻을 풀이한 한자어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국어 한자어일 가능성이 더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언해자 자신도 뜻풀이가 필요한 한자어로 인식했다는 것은 국어에서 통용되는 한자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원문일치한자어" 중에서 국어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단어들은 국어로 자리 잡은 한자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句句'를 언해한 '귀귀히'〈15a〉, '暮刻'을 언해한 구ᄀᆡᆨ〈13a〉, '一刻'을 언해한 '일ᄀᆡᆨ(一刻)'〈37b〉 '衰憊'를 언해한 '쇠뷔'〈39b〉처럼 국어의 음운변화를 겪은 어형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한문 원문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서 한문 원문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세 번째 유형인 "원문불일치한자어"는 국어 어휘 체계에 편입된

---

12) 연규동(1993)에서는 용비어천가의 한자어 분석을 통해, 한시의 한자어와 한글 가사의 한자어가 동일한 경우는 전체의 85%가 넘음을 지적하고 이들은 당시에 국어로 정착한 단어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단어들은 번역하는 사람이 원전과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문의 한자어를 굳이 바꾸지 않았다고 보았다. 번역자들이 이미 한문에 능한 관료 계층이어서 원전의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았다.

13) 언해문에서 한문 원문의 이음절 한자어를 언해문에 그대로 들여온 것만은 아니다. 문맥 의미를 고려하여 어휘를 선택한 경우도 보인다. 한문 원문의 '酒池'를 '술못'〈10b〉으로 언해한 예가 발견된다. 원문의 '酒池'를 언해문에서 그대로 '주지'로 쓰지 않고 '술못'으로 바꾼 이유는 '酒池'의 축자적 의미는 "술을 담은 못"인데, "성왕이 술을 경계하시되 여전히 술못이 있으니"라는 문맥 의미를 고려하면 '술못'은 "주변에 술이 널려 있는 환경"을 뜻하기 때문에 언해문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다.

어휘였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진실'〈11b〉, '빅셩'〈4a〉, '하딕'〈5a〉, '지극'〈11b〉, '흉년'〈18b〉 등의 한자어는 현실 국어 어휘 체계에 완전히 자리 잡은 한자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 유형의 한자어는 언해자가 자신의 언어 직관상 국어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원문의 한자어를 자신에게 익숙한 국어의 한자어로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4]

마지막으로 "원문보충한자어"는 당시의 국어 어휘 체계 안에 들어온 국어로서의 한자어였을까. 아니면 언해자가 언해의 편의상 한문 원문의 한자를 이용해 임시로 조어한 한자어였을까. 그 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일단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국어사 한글 문헌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64개의 "원문보충한자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 대상 문헌에 등장하는 한자어를 그 국어화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사 한글 문헌에 등장하는 한자어에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문헌의 성격, 한자어의 표기 형식, 원문 한자와의 의미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자어의 국어화 정도를 판단해야만 어느 정도 유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15]

"원문보충한자어"의 국어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후일의 연구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원문보충한자어"가 다른 국어사 한글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제시하겠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164개의 "원문보충한자어" 중에 115개의 한자어는 다른 국어사 한글 문헌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사 한글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나머지 49개 중 41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한자어이다. 이 글의 뒤에 제시한 〈부록〉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164개의 "원문보충한자어"가 다른 국어사 한글 문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로 제시하였다.

---

14) 연규동(1993)에서도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한자어 분석을 통하여 한문 원전의 한자어와 언해에 보이는 한자어를 비교해서 원전의 한자어가 아닌 다른 한자어를 써서 번역하였다면, 그 원전의 한자어가 당시 언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던 한자어였으리라고 가정했다. 반면에 언해문에서 원전의 한자어를 대신하여 사용된 한자어는 당시에 충분히 우리말의 어휘체계로 들어와 있다고 보았다. 연규동, 「용비어천가의 한자어에 대하여」, 『언어학』 15권 0호(1993), 243쪽 참조.

15) 이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언해문에 나타나는 한자어가 그대로 국어화한 어휘라고 보는 데는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제속자성편(언해)』가 필사된 시기인 근대국어 한글 문헌에 그 존재가 확인된다면 적어도 언해자가 언해의 편의상 임시로 조어한 어휘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리고 현대국어 한자어로 계승되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한자어는 국어 어휘 체계 속에 편입된 국어로서의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속자성편(언해)』의 언해자가 선택한 이음절의 "원문보충한자어"는 당시에 국어 어휘 체계 안에 포함된 국어 한자어를 이용했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언해자가 임시로 조어한 한자어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二音節) "원문보충한자어"의 형태구조

언해과정에서 한문의 한자가 국어의 한자어 형태소로 변화할 때 겪는 현상에 관심 있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원문보충한자어"이다. 어제언해서에 등장하는 이음절 한자어 중에는 한문 원문에서 일음절로 존재하던 한자가 언해라는 국어화 과정에서 이음절로 변화한 한자어들이 존재한다. 이는 바로 국어 문법에서 한자가 갖는 형태론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한자어 형태소를 고유어 형태소와 비교했을 때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비자립성"이다.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는 대부분 자립형태소가 아니라 의존형태소로 기능한다. 한자는 한문 문장에서는 대부분 자립적인 어간의 성격을 띠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는 대부분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형태소의 자격만 가진 비자립적 성격을 띠게 된다.[16]

물론 한자어 형태소 중에 자립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어 한자어 중에는 한자어 형태소 단독으로 국어의 자립 어간으로 기능하는 소수의 예가 존재한다.[17]

---

16) 이익섭(1968, 1969)에서는 한자어 형태소와 그 복합형식의 대다수가 비자립적 성격의 어근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7) 산(山)·강(江)·책(冊)·향(香)·처(妻)·죄(罪)·상(賞)·동(銅)·난(蘭)·법(法)·문(門)·벽(壁)·병(病)·복(福)·색(色)·신(神)·암(癌)·약(藥)·예(例)·왕(王)·잔(盞)·점(占)·정(情)·종(鐘)·흥(興)·형(兄) 등이 자립형태소로 존재하는 한자어 형태소이다. 대개 고유어에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이렇게 대부분 비자립 형태소로 존재하는 한자어 형태소가 비자립성을 해결하고 자립적인 국어 어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다른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여 이음절(二音節) 이상의 한자어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자립적인 국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國家, 祖父, 父親"의 경우처럼 이음절 한자어를 이루는 경우가 전자의 예이고, "골草, 찰穀, 햇穀, 풋草, 햇筍, 告하다, 避하다"처럼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후자의 예이다. 후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현주(2015)에서 기술한 바 있다.[18]

국어의 한자어는 대부분 이음절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음절 이상이 되어야만 비자립성을 해소하고 국어의 어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한자의 이음절화는 한자가 국어의 어휘체계로 편입되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19]

담당하는 한자어 형태소는 자립형태소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말큰사전』에는 일음절 한자어로서 자립적인 명사 어간으로 기능하는 단어가 120개 정도 발견된다. 일상적인 국어생활에 쓰이지 않는 학술용어는 제외한 숫자이다.

18) 일반적으로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는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고 고유어 형태소는 고유어 형태소와 결합한다. 그러나 한자어 형태소와 고유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漢字語語基에 固有語 派生接辭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국어의 모든 고유어 파생접사가 고유어 어기에서와 똑같은 제약을 가지고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유어 어기와 별 차이 없이 한자어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 파생접사도 있지만, 한자어 어기에 전혀 결합할 수 없는 파생접사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국어 한자어 중에는 국어 파생어 형성에 어기로 참여할 수 있는 한자어도 있지만, 전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자어도 존재한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파생접사의 결합에서 생기는 제약을 국어 단어 형성에서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특징에서 찾았다.

19) 한자어 형태소는 이와 같이 대부분 의존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어 단어 형성에서 담당하는 주된 기능이 복합적 의미를 지닌 어휘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천·지·자·녀 등의 한자어 형태소는 국어에서 자립적인 명사어간으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천지, 부모, 자녀' 등과 같은 복합적 의미의 한자어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한다. 고유어 '아버지, 어머니'가 국어의 복합어 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한자어 형태소 '부, 모'는 '부모, 부자, 부녀, 모녀, 모자, 모성, 부성' 등의 복합적 의미의 한자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자어 형태소가 복합적 의미의 단어 형성에서 고유어 형태소보다 생산성이 높은 이유를 송기중(宋基中 1992: 78-79)에서는 다음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 모든 한자어 형태소는 단음절이지만 고유어 형태소는 복수 음절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음절인 한자어 형태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유어 형태소보다 유리하다.

둘째, 한자어 형태소가 가지는 형태론적 기능이 다양하지만 고유어 형태소는 형태론적 기능이 단일하다. 고유어 형태소는 자립형태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의존형태소인 경우에는 보통 단어 형성에서 수식기능이든 피수식기능이든 한 가지 기능만 가진다. 반면에, 한자어 형태소는 피수식기능과 수식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한자로 쓰인 한문을 국어로 언해(번역)하는 일은 한문 문헌 안에 포함된 한자들을 국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말에서 전술했던 바와 같이 한문과 번역문에 같은 한자가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한자가 발휘하는 문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父'의 경우 한문에서는 자립형태소로서 명사어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어에서는 의존형태소로서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어서 언해문에는 한자어 '부친' 또는 고유어 '아비'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서 국어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음절 한자어로 교체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문 원문의 일음절 한자를 이용해 언해문에서 이음절로 조어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우선『어제속자성편(언해)』에 등장하는 "원문보충한자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한문 원문의 한자가 모두 동일한 이음절의 "원문보충한자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서 2개 이상의 원문보충한자어로 나타나는 예**

【懲】 딩계(懲戒)〈23a〉, 딩티(懲治)〈23a〉
【憫】 민망(憫惘)〈35b〉, 민측(憫惻)〈2b〉
【私】 ᄉᆞ사(私事)〈25b〉, ᄉᆞ졍(私情)〈24b〉
【判】 판단(判斷)〈13a〉, 판연(判然)〈31b〉
【風】 풍쇽(風俗)〈35a〉, 풍습(風習)〈25a〉
【教】 하교(下教)〈6b〉, ᄌᆞ교(慈教)〈9b〉
【供】 공봉(供奉)〈28b〉, 공샹(供上)〈16a〉
【工】 공부(工夫)〈29b〉, 공역(工役)〈40a〉
【費】 경비(經費)〈28a〉, 부비(浮費)〈16b〉, 허비(虛費)〈14b〉
【誠】 셩의(誠意)〈9b〉, 졍셩(精誠)〈4b〉
【衣】 의ᄃᆡ(衣帶)〈16a〉, 의복(衣服)〈6b〉
【飭】 틱녀(飭勵)〈25a〉, 계칙(戒飭)〈8b〉
【忽】 만홀(漫忽)〈13a〉, 범홀(泛忽)〈7a〉, 홀연(忽然)〈39a〉
【效】 효측(效則)〈16b〉, 효험(效驗)〈1a〉

한문 원문의 한자를 이용해 언해문에서 한자어를 선택할 때 얼마나

세밀하게 문맥의 의미를 고려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費'의 경우, 언해자의 언어 직관으로는 문맥에 따라서 '경비', '부비', '허비'의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음은 "원문보충한자어"의 형태구조에 대해서 검토해보려고 한다. 전술하였듯이,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이 한자가 더 이상 한문의 한자가 아니라 국어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국어 한자어 형태소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어화한 한자어 형태소는 한문에서 발휘하던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어 한자어가 되기 위한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이음절화임을 앞서 지적하였다. 한문의 한자가 이음절화하는 이유는 동일한 한자가 한문에서 갖는 문법적 성격과 언해문에서 갖는 문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어에서 한자는 자립적인 단어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비자립적인 형태소의 자격만 가지고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한문 원문의 한자가 이음절화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유사의미 결합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등한 자격으로 두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한 구조이다. 한문 원문의 한자와 동의관계나 유의관계에 있는 한자어 형태소를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다.

● **유사의미 결합구조(※'【 】'의 한자가 한문 원문의 한자임)**

【强】강잉(强仍) 【擧】거조(擧操, 擧措) 【儉】검소(儉素) 【戒】경계(警戒)
【飭】계칙(戒飭) 【汨】골몰(汨沒) 【敬】공경(恭敬) 【供】공봉(供奉)
【工】공역(工役) 【異】괴이(怪異) 【訓】교훈(敎訓) 【勸】권쟝(勸奬)
【例】규례(規例) 【本】근본(根本) 【源】근원(根源) 【記】긔록(記錄)
【紀】긔록(紀錄) 【期】긔약(期約) 【業】긔업(基業) 【切】긴졀(懇切)
【創】ᄀᆡ창(開創) 【略】냑간(略間) 【念】념녀(念慮) 【端】단졍(端整)
【適】뎍듕(適中) 【畋】뎐렵(畋獵) 【道】도리(道理) 【都】도읍(都邑)
【朝】됴뎡(朝廷) 【斁】두상(斁상) 【懲】딩계(懲戒) 【懲】딩티(懲治)
【驗】딩험(徵驗) 【答】ᄃᆡ답(對答) 【侮】만모(慢侮) 【忽】만홀(漫忽)
【章】문장(文章) 【憫】민망(憫惘) 【憫】민측(憫惻) 【萌】밍동(萌動)
【忽】범홀(泛忽) 【黨】붕당(朋黨) 【喩】비유(譬喩) 【謝】샤례(謝禮)
【奢】샤치(奢侈) 【侈】샤치(奢侈) 【瑞】샹서(祥瑞) 【尙】숭샹(崇尙)
【神】신긔(神奇) 【師】ᄉᆞ부(師傅) 【逸】안일(安逸) 【按】안찰(按察)

【抑】억졔(抑制) 【故】연고(緣故) 【傲】오만(傲慢) 【庸】용녈(庸劣)
【運】운뎐(運轉) 【隕】운튜(隕墜) 【援】원인(援引) 【慰】위로(慰勞)
【惠】은혜(恩惠) 【議】의논(議論) 【義】의리(義理) 【倣】의방(依倣)
【衣】의복(衣服) 【訝】의아(疑訝) 【依】의지(依支) 【托】의탁(依托)
【節】졀ᄎᆞ(節次) 【整】졍돈(整頓) 【租】조셰(租稅) 【至】지극(至極)
【賑】진휼(賑恤) 【質】질졍(質定) 【子】ᄌᆞ식(子息) 【箴】줌계(箴戒)
【貨】지화(財貨) 【與】참여(參與) 【參】참예(參預) 【蒼】창창(蒼蒼)
【忠】튱셩(忠誠) 【特】특별(特別) 【飭】틱녀(飭勵) 【判】판단(判斷)
【評】평논(評論) 【風】풍쇽(風俗) 【風】풍습(風習) 【洽】협흡(浹洽)
【勢】형셰(形勢) 【復】회복(回復) 【懷】회포(懷抱) 【效】효측(效則)
【效】효험(效驗) 【慕】흠모(欽慕) 【學】ᄒᆞᆨ문(學問)

두 번째는 “수식의미 첨가구조”이다. 한문 원문에서 이동한 한자어 형태소를 다른 한자어 형태소가 수식하는 결합구조이다. 이때는 한문 원문에서 이동한 한자어 형태소가 중심 의미를 담당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다른 한자어 형태소가 수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수식의미 첨가구조**

【慨】개연(慨然) 【費】경비(經費) 【工】공부(工夫) 【供】공샹(供上)
【果】과연(果然) 【官】관원(官員) 【究】궁구(窮究) 【禁】금녕(禁令)
【氣】긔운(氣運) 【吉】길복(吉服)[20] 【凉】냥긔(凉氣) 【農】농ᄉᆞ(農事)
【御】님어(臨御) 【蓋】대개(大蓋) 【闕】대궐(大闕) 【詔】됴셔(詔書)
【膳】믈션(物膳)[21] 【每】미양(每樣) 【保】보젼(保全) 【腹】복듕(腹中)
【費】부비(浮費) 【攷】샹고(詳攷) 【攝】셥힝(攝行) 【誠】셩의(誠意)
【世】셰상(世上) 【竦】숑연(竦然) 【悚】숑연(悚然) 【試】시ᄌᆡ(試才)
【臣】신하(臣下) 【史】ᄉᆞ긔(史記) 【邸】ᄉᆞ뎌(私邸) 【私】ᄉᆞᄉᆞ(私事)
【私】ᄉᆞ졍(私情) 【役】역ᄉᆞ(役事)[22] 【王】왕도(王道) 【要】요도(要道)
【慾】욕심(慾心) 【遊】유관(遊觀) 【益】유익(有益) 【食】음식(飮食)

---

20) 삼년상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 (표준국어대사전)
21) 음식을 만드는 재료. (표준국어대사전)
22)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 (표준국어대사전)

【衣】의ᄃᆡ(衣帶) 【欲】인욕(人欲) 【任】임의(任意) 【誠】졍셩(精誠)
【正】졍심(正心) 【政】졍ᄉᆞ(政事) 【具】졔구(諸具) 【左】좌편(左便)
【遵】준힝(遵行) 【財】지물(財物) 【薦】쳔거(薦擧) 【縗】최마(衰麻)
【黲】츰포(黲袍) 【歎】탄식(歎息) 【理】텬리(天理) 【判】판연(判然)
【覇】패도(覇道) 【教】하교(下教) 【費】허비(虛費) 【誕】허탄(虛誕)
【忽】홀연(忽然) 【孝】효도(孝道)

마지막으로 위의 두 유형의 한자어와 성격이 다른 "문맥 보충 한자어"가 소수 존재한다. 이 유형의 한자어들은 그 의미가 대응하는 한문 원문의 한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문 원문에서 이동한 한자어 형태소는 전혀 중심 의미를 담당하지도 않는다. 언해자는 문맥을 고려하여 한문 원문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의미를 보충하여 전혀 새로운 한자어를 선택하였다.

● **문맥 보충 한자어**

【象】건샹(乾象)[23] 【拜】뎐빅(展拜)[24] 【授】뎨슈(除授)[25] 【勉】면계(勉戒)
【藩】번임(藩任)[26] 【講】법강(法講)[27] 【禪】션위(禪位)[28] 【直】입딕(入直)[29]
【教】ᄌᆞ교(慈教)[30]

Ⅳ. 맺음말

이 글은 어제 언해서 중의 하나인『어제속자성편(언해)』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한자로 쓰인 한문을 국어로 언해(번역)하는 일은 한문 문헌 안에 포함된

23) 하늘의 현상이나 일월성신이 돌아가는 이치. (표준국어대사전)
24) 궁궐, 종묘, 문묘, 능침 따위에 참배함. (표준국어대사전)
25)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표준국어대사전)
26) 번신(藩臣)의 임무나 책임. (표준국어대사전)
27) 조선 시대에, 임금 앞에서 예식을 갖추어 아침 · 낮 · 저녁 세 차례 행하던 강의. (표준국어대사전)
28)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표준국어대사전)
29)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숙직함. 또는 차례로 당직함. (표준국어대사전)
30) 궁중에서, 왕후의 교훈을 이르던 말. (표준국어대사전)

한자들을 국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문과 언해문에 똑같은 한자가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한자가 발휘하는 문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언해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비자립성"이다. 예를 들면 '父'의 경우 한문에서는 자립형태소로서 명사 어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어에서는 의존형태소로서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어 '부친'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서 국어화하는 과정에서 이음절 한자어로 교체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제 언해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서각 소장의 『어제속자성편(언해)』를 통하여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를 분석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한문 원문의 한자와의 일치성 여부를 고려하여, "원문일치한자어", "원문보충한자어", "원문불일치한자어"로 지칭하였다. 『어제속자성편(언해)』와 같이 철저한 직역 위주의 언해서는 다른 한글 문헌에 비하여 한문 원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언해문 안에는 한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한자어와 국어에 정착한 한자어가 혼재할 수 있다.

특히 "원문일치한자어" 중에 한문 원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한자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나 "원문일치한자어" 중에 국어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단어들은 국어로 자리 잡은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원문불일치한자어"는 언해자가 자신의 언어 직관상 국어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원문의 한자어를 자신에게 익숙한 국어의 한자어로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어로 정착한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다.

"원문보충한자어"의 경우에는 『어제속자성편(언해)』가 필사된 시기인 근대의 한글 문헌에 그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국어화 정도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해자가 언해의 편의상 임시로 조어한 어휘라고는 보기 힘들다.

어제 언해서에 등장하는 국어로서의 한자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목한 것은 “원문보충한자어”이고 이들 한자어는 국어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비자립적 성격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서 이음절화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유사의미 결합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데, 대등한 자격으로 두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한 구조이다. 한문 원문의 한자와 동의관계나 유의관계에 있는 한자어 형태소를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는 구조이다. 두 번째는 “수식의미 첨가구조”이다. 한문 원문에서 이동한 한자어 형태소를 다른 한자어 형태소가 수식하는 결합구조이다. 이때는 한문 원문에서 이동한 한자어 형태소가 중심 의미를 담당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다른 한자어 형태소가 이를 수식하는 구조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연구원 편저,『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광해,『固有語와 漢字語의 對應現象』. 國語學 叢書 16, 塔出版社, 1989.

김완진,「이른 時期에 있어서의 韓中言語接觸의 一斑에 對하여」.『語學硏究』6-1, 서울대 語學硏究所, 1970.

南廣祐,『中世國語 漢字語에 대한 基礎的 硏究」.『한국어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남풍현,『中國語 借用에 있어서 直接借用과 間接借用의 問題에 대하여』.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1968.

노명희,『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박용만,「英祖 御製册의 자료적 성격」.『장서각』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宋基中,「現代國語 漢字語의 構造」.『한국어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沈在箕,「漢字語의 구조와 그 조어력」.『국어생활』8호, 1987.

안소진,「한자어 형태론의 제 문제와 어휘부」.『한국어학』62권 0호, 2014, 373-394쪽.

연규동,「용비어천가의 한자어에 대하여」.『언어학』15권 0호, 1993, 241-251쪽.

李翊燮,『漢字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1968.

_____,『漢字語의 非一音節 單一語』. 金載元博士 還甲紀念論文集, 1969.

_____,『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이현주,「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통시적 고찰」.『정신문화연구』제39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전광현,「근대국어 한자어에 대한 기초적 연구(I)」.『한국어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조남호,『두시언해 한자어 연구』. 태학사, 2001.

趙世用,『漢字語에서 改鑄된 歸化語 硏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저,『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1995.

한글학회,『우리말 큰사전』2. 어문각, 1991.

허웅,『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1975.

____,『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1992.

황문환 외,『역주 어제속자성편(언해)』.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본 자료총서 2, 역락, 2006.

국 문 초 록

한자로 쓰인 한문을 국어로 언해(번역)하는 일은 한문 문헌 안에 포함된 한자들을 국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문과 언해문에 똑같은 한자가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한자가 발휘하는 문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한자는 한문에서는 자립형태소로서 명사어간이나 동사어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어에서는 의존형태소로서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다. 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비자립성"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서 국어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음절 한자어로 교체된다.

『어제속자성편(언해)』에 나타나는 이음절 한자어는 한문 원문의 한자와의 일치성 여부를 고려하여, "원문일치한자어", "원문보충한자어", "원문불일치한자어"로 분류할 수 있다.

『어제속자성편(언해)』와 같이 철저한 직역 위주의 언해서는 한문 원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언해문 안에는 한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한자어와 국어에 정착한 한자어가 혼재할 수 있다. 특히 "원문일치한자어" 중에 한문 원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한자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반면에 "원문불일치한자어"는 언해자가 자신의 언어 직관상 국어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원문의 한자어를 자신에게 익숙한 국어의 한자어로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어로 정착한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다. "원문보충한자어"의 경우에는 근대의 한글 문헌에 그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국어화 정도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해자가 언해의 편의상 임시로 조어한 어휘라고는 보기 힘들다.

"원문보충한자어"는 국어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비자립적 성격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한문 원문의 한자가 언해문에서 이음절화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유사의미 결합구조"이고 두 번째는 "수식의미 첨가구조"이다.

투고일 2016. 9. 20.
심사일 2016. 11. 3.
게재 확정일 2016. 11. 14.
주제어(keyword) 한자어(Sino-Korean), 한자어 형태소(Sino-korean morpheme), 언해(Korean annotation of Chinese classics)

부 록

『어제속자성편(언해)』 이음절 “원문보충한자어”의
국어사 한글문헌 출현 양상

언해문 한자어	원문 한자	출전
강잉(强仍)	强	〈東新烈1:2b〉
개연(慨然)	慨	〈家禮9:34b〉
거조(擧操)	擧	〈捷解初7:10b〉, 〈東新烈6:13b〉
건샹(乾象)	象	『표준국어대사전』
검소(儉素)	儉	〈女訓下:38a〉
경계(警戒)	戒	〈七類:26a〉, 〈七千:12b〉, 〈馬經上:83b〉, 〈女訓上:38a〉, 〈警民重:30a〉, 〈痘瘡下:42b〉, 〈東新烈6:41b〉, 〈家禮10:10b〉
경비(經費)	費	『표준국어대사전』
계칙(戒飭)	飭	〈閑中錄570〉
골몰(汨沒)	汨	〈普勸文38〉
공경(恭敬)	敬	〈七類:19b〉, 〈七千:8b〉, 〈東新烈2:67b〉, 〈女訓上:41a〉, 〈警民重:33a〉, 〈勸念:4a〉, 〈家禮10:47a〉
공봉(供奉)	供	〈杜解25:51〉
공부(工夫)	工	〈老乞上:2b〉, 〈朴通上:44b〉, 〈語錄重:33b〉
공샹(供上)	供	『표준국어대사전』
공역(工役)	工	『표준국어대사전』
과연(果然)	果	〈東新孝5:52b〉, 〈捷解初1:29b〉, 〈家禮5:23b〉, 〈焰焇:2a〉, 〈老乞下:4a〉, 〈朴通上:60b〉
관원(官員)	官	〈捷解初7:9b〉, 〈譯語上:16a〉, 〈老乞上:26b〉, 〈東新忠1:37b〉, 〈鍊兵:15a〉, 〈警民重:14b〉, 〈辟瘟:1b〉, 〈朴通中:46a〉
괴이(怪異)	異	〈譯語下:44a〉〈老乞下:4a〉〈朴通中:49a〉〈家禮1:37a〉
교훈(敎訓)	訓	〈女訓下:48a〉
궁구(窮究)	究	〈語錄重:3b〉, 〈痘瘡下:24b〉, 〈女訓上:10b〉, 〈家禮1:40a〉
권장(勸奬)	勸	〈同文解上42〉, 〈捷夢1:11〉, 〈敬信序 1〉
규례(規例)	例	〈家禮1:14b〉
근본(根本)	本	〈女訓上:9b〉, 〈警民重:21b〉, 〈痘瘡上:30a〉
근원(根源)	源	〈女訓上:18a〉, 〈七類:30b〉, 〈警民重:28b〉, 〈痘瘡下:68b〉
금녕(禁令)	禁	『표준국어대사전』
긔록(紀錄)	紀	
긔록(記錄)	記	〈七類:25a〉, 〈東新忠1:57b〉, 〈焰焇:19b〉, 〈譯語下:52a〉, 〈東新續忠:1b〉, 〈警民重:33a〉
긔약(期約)	期	〈七類:24a〉, 〈東新續烈:18b〉, 〈東新烈1:2b〉, 〈勸念:3a〉, 〈警民重:29b〉
긔업(基業)	業	〈女訓下:4b〉
긔운(氣運)	氣	〈東新孝6:73b〉, 〈七類:3a〉, 〈七千:12a〉, 〈痘瘡下:41a〉, 〈馬經上:89b〉, 〈救荒:5a〉, 〈煮硝:2a〉, 〈警民重:29a〉, 〈胎產:16a〉, 〈焰焇:7b〉, 〈辟瘟:15b〉, 〈女訓下:3b〉
길복(吉服)	吉	〈家禮1:44b〉
ᄀᆞ졀(懇切)	切	〈警民重:35a〉, 〈東新孝8:9b〉, 〈勸念:8b〉
ᄀᆡ창(開創)	創	〈女四解4:7〉
냑간(略間)	略	〈譯語下:53b〉
냥긔(涼氣)	涼	『표준국어대사전』
념녀(念慮)	念	〈家禮2:2b〉, 〈警民重:35a〉, 〈東新孝6:39b〉, 〈捷解初3:4a〉

농ᄉᆞ(農事)	農	〈重杜解12:37〉, 〈綸音91〉
님어(臨御)	御	『표준국어대사전』
단졍(端整)	端	〈朴通上:18b〉, 〈女訓下:23b〉, 〈東新忠1:28b〉, 〈勸念:18a〉
대개(大蓋)	蓋	〈老乞下:38a〉, 〈煮硝:17a〉, 〈警民重:41b〉, 〈朴通上:48a〉, 〈東新忠1:61b〉
대궐(大闕)	闕	〈東新孝6:84b〉, 〈譯語上:8b〉
뎍듕(適中)	適	〈家禮10:8b〉
뎐렵(畋獵)	畋	
뎐빅(展拜)	拜	『표준국어대사전』
뎨슈(除授)	授	〈朴通中:46b〉
도리(道理)	道	〈女訓上:41a〉, 〈捷解初6:17a〉, 〈朴通下:19a〉, 〈老乞下:41b〉, 〈警民重:34a〉, 〈東新烈6:70b〉, 〈勸念:5a〉
도읍(都邑)	都	〈東新忠1:29b〉
됴뎡(朝廷)	朝	〈三綱忠7〉, 〈初杜解6:24〉, 〈心經67〉, 〈飜老上5〉, 〈宣論2:50〉, 〈宣小6:36〉, 〈家禮1:12〉, 〈老解上4〉, 〈仁祖行狀7〉, 〈女範1〉
됴셔(詔書)	詔	〈勸念:11b〉
두상(敷상)	敷	
딩계(懲戒)	懲	〈仁祖行狀14〉
딩티(懲治)	懲	〈警民重:26a〉
딩험(徵驗)	驗	〈東新孝5:52b〉, 〈東新孝2:83b〉, 〈東新孝2:55b〉, 〈女訓上:19b〉
ᄃᆡ답(對答)	答	〈七千:28b〉, 〈語錄初:23b〉, 〈東新忠1:25b〉, 〈捷解初5:26b〉, 〈女訓下:28a〉, 〈老乞上:5a〉, 〈鍊兵:16b〉, 〈家禮4:7a〉, 〈譯語上:41a〉, 〈警民重:9b〉, 〈勸念:22a〉, 〈馬經上:50b〉
만모(慢侮)	侮	〈家禮2:23a〉
만홀(漫忽)	忽	〈女訓下:45b〉, 〈家禮2:12a〉
면계(勉戒)	勉	
문장(文章)	章	〈朴通上:42a〉
믈션(物膳)	膳	『표준국어대사전』
민망(憫惘)	憫	〈捷解初4:23b〉, 〈家禮7:16b〉, 〈警民序:2b〉, 〈東新孝1:45b〉
민측(憫惻)	憫	
ᄆᆡ양(每樣)	每	〈東新孝2:64b〉, 〈痘瘡下:58a〉, 〈胎產:59a〉, 〈家禮1:10b〉, 〈馬經下:21b〉, 〈救荒補:9a〉, 〈七千:30b〉, 〈朴通下:57b〉, 〈警民序:2a〉, 〈辟瘟:12a〉, 〈焰焇:2a〉
밍동(萌動)	萌	『표준국어대사전』
번임(藩任)	藩	『표준국어대사전』
범홀(泛忽)	忽	〈윤음72〉
법강(法講)	講	『표준국어대사전』
보젼(保全)	保	〈警民重:18a〉, 〈東新烈6:50b〉, 〈家禮1:13b〉
복듕(腹中)	腹	〈馬經下:65a〉, 〈痘瘡上:1b〉, 〈胎產:21a〉
부비(浮費)	費	『표준국어대사전』
붕당(朋黨)	黨	〈仁祖行狀28〉
비유(譬喩)	喩	〈釋譜13:38〉, 〈六祖中59〉
샤례(謝禮)	謝	〈家禮7:10a〉
사치(奢侈)	奢 侈	〈女訓下:38a〉
샹고(詳攷)	攷	〈飜小9:53〉
샹셔(祥瑞)	瑞	〈勸念:11b〉
션위(禪位)	禪	『표준국어대사전』
셥힝(攝行)	攝	『표준국어대사전』
셩의(誠意)	誠	『표준국어대사전』
셰상(世上)	世	〈家禮5:23b〉

송연(竦然)	竦	『표준국어대사전』
송연(悚然)	悚	『표준국어대사전』
숭상(崇尙)	尙	〈家禮1:序4a〉
시지(試才)	試	『표준국어대사전』
신긔(神奇)	神	〈痘瘡上:66a〉, 〈東新忠1:29b〉, 〈勸念:18a〉
신하(臣下)	臣	〈七千:4b〉, 〈東新忠1:39b〉, 〈女訓上:6b〉, 〈勸念:17b〉, 〈警民重:7b〉, 〈捷解初3:15a〉, 〈譯語上:10b〉
ᄉᆞ긔(史記)	史	〈家禮2:24b〉, 〈女訓下:39b〉
ᄉᆞ뎌(私邸)	邸	『표준국어대사전』
ᄉᆞ부(師傅)	師	〈朴通下:3a〉
ᄉᆞᄉᆞ(私事)	私	〈捷解初2:7a〉, 〈老乞下:17b〉
ᄉᆞ졍(私情)	私	〈東新孝7:32b〉
안일(安逸)	逸	〈女訓下:18b〉
안찰(按察)	按	『표준국어대사전』
억제(抑制)	抑	『표준국어대사전』
역ᄉᆞ(役事)	役	〈焰焇:5a〉, 〈焰焇:13a〉, 〈東新孝7:84b〉, 〈煮硝:5b〉
연고(緣故)	故	〈捷解初9:5b〉, 〈家禮6:32a〉, 〈東新孝3:72b〉, 〈朴通上:58b〉, 〈語錄重:37b〉, 〈警民重:22b〉, 〈煮硝:15b〉, 〈痘瘡上:11a〉
오만(傲慢)	傲	〈女訓下:29b〉
왕도(王道)	王	『표준국어대사전』
요도(要道)	要	『표준국어대사전』
욕심(慾心)	慾	〈東新孝5:65b〉, 〈警民重:15a〉
용녈(庸劣)	庸	〈同文解上23〉, 〈捷夢1:7〉, 〈兒學下9〉
운뎐(運轉)	運	〈兒學下7〉
운튜(隕墜)	隕	
원인(援引)	援	『표준국어대사전』
위로(慰勞)	慰	〈東新三忠:2b〉, 〈女訓下:18b〉
유관(遊觀)	遊	『표준국어대사전』
유익(有益)	益	〈女訓上:18b〉, 〈警民重:36a〉, 〈東新孝8:22b〉, 〈救荒補:18b〉, 〈家禮3:20a〉
은혜(恩惠)	惠	〈東新忠1:56b〉, 〈警民重:28a〉, 〈女訓下:18a〉, 〈七類:20b〉, 〈七千:18a〉, 〈老乞下:37b〉〉, 〈朴通上:51b〉
음식(飮食)	食	〈東新孝5:75b〉, 〈譯語下:47b〉, 〈警民重:34b〉, 〈痘瘡上:27a〉, 〈馬經上:24b〉, 〈家禮2:26a〉, 〈老乞下:36b〉, 〈胎產:13a〉, 〈辟瘟:17a〉, 〈女訓下:8b〉, 〈朴通中:54a〉
의논(議論)	議	〈女訓上:28a〉, 〈家禮6:22a〉, 〈警民重:29a〉, 〈老乞下:19a〉, 〈勸念:2a〉, 〈馬經上:38a〉, 〈語錄初:24b〉, 〈東新忠1:61b〉, 〈捷解初7:20a〉
의ᄃᆡ(衣帶)	衣	〈家禮6:9b〉
의리(義理)	義	〈家禮2:24b〉, 〈東新孝6:42b〉
의방(依倣)	倣	〈東新孝2:2b〉, 〈家禮8:2a〉
의복(衣服)	衣	〈東新烈2:60b〉, 〈痘瘡下:38b〉, 〈家禮5:17a〉, 〈女訓下:14b〉, 〈朴通上:51b〉
의아(疑訝)	訝	〈落泉3:8〉
의지(依支)	依	〈譯語下:47a〉, 〈語錄初:13a〉, 〈東新烈7:3b〉, 〈痘瘡下:45a〉, 〈朴通下:21a〉, 〈家禮5:21a〉
의탁(依托)	托	〈東新孝5:13b〉, 〈勸念:9a〉, 〈家禮10:47b〉
인욕(人欲)	欲	
임의(任意)	任	〈煮硝:15b〉, 〈救荒補:6b〉
입딕(入直)	直	『표준국어대사전』

졀ᄎ(節次)	節	〈煮硝:10a〉, 〈捷解初7:16b〉
졍돈(整頓)	整	『표준국어대사전』
졍셩(精誠)	誠	〈東新孝4:44b〉, 〈家禮1:28a〉
졍심(正心)	正	『표준국어대사전』
졍ᄉᆞ(政事)	政	〈女訓上:19a〉
졔구(諸具)	具	『표준국어대사전』
조셰(租稅)	租	〈朴通下:37a〉
좌편(左便)	左	『표준국어대사전』
준힝(遵行)	遵	『표준국어대사전』
지극(至極)	至	〈東新續孝:23b〉, 〈東新烈4:6b〉, 〈勸念:3b〉, 〈勸念:3b〉, 〈女訓下:34b〉
진휼(賑恤)	賑	〈宣賜內訓2下58〉
질졍(質定)	質	〈家禮6:13b〉, 〈焰焇:2a〉, 〈家禮圖:18a〉
ᄌᆞ교(慈敎)	敎	『표준국어대사전』
ᄌᆞ식(子息)	子	〈東新孝3:88b〉, 〈女訓下:13b〉, 〈胎產:11a〉, 〈家禮圖:16b〉
ᄌᆞᆷ계(箴戒)	箴	『표준국어대사전』
ᄌᆡ물(財物)	財	〈警民重:23a〉, 〈東新烈2:17b〉, 〈家禮2:3a〉, 〈女訓下:4a〉, 〈朴通中:17b〉
ᄌᆡ화(財貨)	貨	〈東新忠1:75b〉, 〈女訓下:4a〉, 〈家禮2:3b〉
참여(參與)	與	〈家禮9:22b〉
참예(參預)	參	〈東新孝3:72b〉, 〈警民:23b〉, 〈家禮6:32a〉, 〈女訓上:19a〉
창창(蒼蒼)	蒼	『표준국어대사전』
쳔거(薦擧)	薦	〈東新孝5:24b〉, 〈家禮7:5b〉
최마(衰麻)	縗	〈家禮9:33a〉
ᄎᆞᆷ포(黲袍)	黲	〈家禮10:42a〉
탄식(歎息)	歎	〈兒學下3〉, 〈初杜解6:42〉, 〈宣小6:85〉, 〈重杜解23:46〉, 〈同文解上20〉, 〈漢淸7:3〉, 〈落泉1:2〉
텬리(天理)	理	〈女訓下:23a〉
튱셩(忠誠)	忠	〈家禮2:13b〉, 〈三綱忠19〉, 〈東三綱忠6〉, 〈백행원13〉, 〈洛城1〉
특별(特別)	特	〈朴通下:60a〉, 〈東新孝3:7b〉, 〈語錄初:6b〉, 〈家禮1:7a〉
틱녀(飭勵)	飭	
판단(判斷)	判	『표준국어대사전』
판연(判然)	判	『표준국어대사전』
패도(霸道)	霸	『표준국어대사전』
평논(評論)	評	『표준국어대사전』
풍쇽(風俗)	風	〈家禮7:17a〉, 〈警民重:22b〉, 〈女訓上:29b〉, 〈七千:30a〉, 〈捷解初5:23b〉
풍습(風習)	風	『표준국어대사전』
하교(下敎)	敎	〈綸音19〉, 〈經筵〉
허비(虛費)	費	〈女訓下:39b〉, 〈家禮5:18a〉, 〈警民重:12b〉, 〈煮硝:10b〉, 〈譯語下:46a〉, 〈馬經下:123a〉 〈朴通上:48b〉
허탄(虛誕)	誕	〈飜小8:42〉, 〈宣小5:91〉, 〈山城63〉
협흡(浹洽)	洽	『표준국어대사전』
형셰(形勢)	勢	〈家禮7:15a〉
홀연(忽然)	忽	〈馬經下:98a〉, 〈痘瘡下:26a〉, 〈東新續孝:11b〉, 〈胎產:27a〉, 〈朴通下:48a〉
회복(回復)	復	〈三綱忠22〉, 〈女四解4:35〉
회포(懷抱)	懷	〈杜解15:39〉, 〈重杜解10:46〉, 〈綸音26〉, 〈落泉1:1〉
효도(孝道)	孝	〈警民重:21b〉, 〈東新孝5:10b〉, 〈女訓下:8a〉
효측(效則)	效	〈宣小5:105〉, 〈重杜解19:2〉, 〈經筵〉, 〈落泉1:1〉, 〈萬言詞〉

효험(效驗)	效	〈東新孝3:29b〉, 〈辟瘟:3b〉, 〈胎產:5a〉, 〈馬經下:109b〉, 〈痘瘡下:27a〉, 〈語錄重:31a〉, 〈焰焇:5a〉, 〈救荒:10a〉, 〈家禮7:17b〉
흠모(欽慕)	慕	〈落泉1:2〉
ᄒᆞᆨ문(學問)	學	〈東新孝6:24b〉, 〈警民重:19b〉

Abstracts

The Feature of Sino-Koreans of Two Syllables Appeared in *Eojesokjaseongpyeon*(*Translation*)

Lee, Hyun-ju

This thesis is the study on the The feature of Sino-Koreans of two syllables appeared in *Eojesokjaseongpyeon(Translation)*.

To translate the Chinese classics into Korean signifies that Chinese characters included in the Chinese classics change to Sino-Korean. Even if the same Chinese characters is used to the Chinese classics and translation, the grammatical function is different.

On the average, Sino-Korean morphemes don't function as the self-reliance morphemes. Because of this, the monosyllabic Chinese characters is changed to two syllables.

We can range the disyllabic Sino-Koreans of *Eojesokjaseongpyeon(Translation)* according to the conformity degree with chinese classics. That is "the disyllabic Sino-Koreans coincided with the original," "the disyllabic Sino-Koreans in discord with the original," "the disyllabic Sino-Koreans coincided with the original in part."